

우리 시각으로 살펴본 미술가들의 작품세계

‘재원 미술작가론’ 시리즈

국내외 미술가들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우리의 시각으로 조명한 평문집이 시리즈로 나오고 있어 색다른 시선을 끈다. 미술전문출판사인 도서출판 재원(대표 박덕흠)이 ‘미술의 해’를 맞아 새롭게 기획 발간하고 있는 ‘재원미술작가론’이 그것. 우선 《김복진—힘의 미학》(최열)과 《앤디 워홀—거울을 가진 미술사의 신화》(강홍구) 두권을 첫선 보였다. 곧이어 《칸딘스키》(김숙경) 《케테 콜비츠》(민혜숙) 《클림트》(이주현) 등을 1차분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주체적인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

이 시리즈는 그동안 국내작가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가 없었다는 점과, 해외 작가를 번역이 아닌 국내 평론가들이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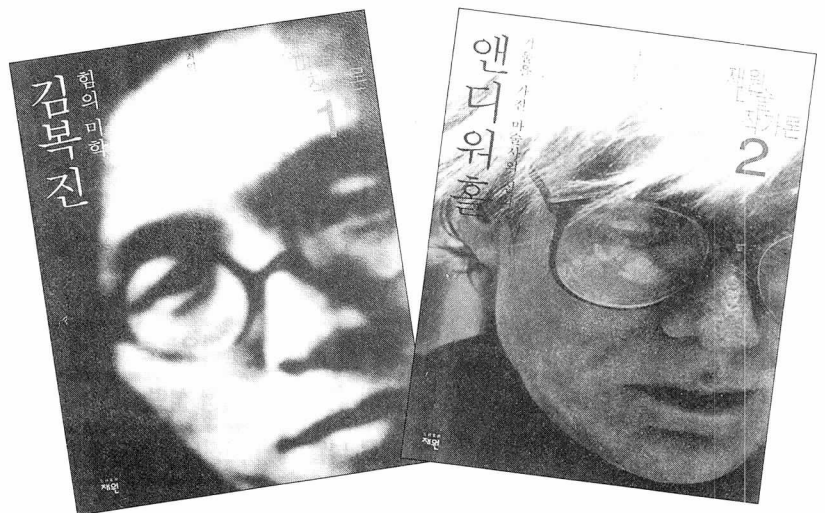
“광복50주년을 맞은 오늘도 현대미술의 현실은 여전히 번역본과 수입서에 의존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제는 현재의 자료만이라도 철저히 고증해서 우리 시각으로 재평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한국 미술문화가 지닌 전통적 상상력을 확대하고, 서구 미술문화의 과학성을 주체적으로 재조명한다면 우리 현대미술이 나아갈 바를 찾을 수 있지 않

겠느냐는 생각에서 이 시리즈를 출발했다.” 기획의도에 대한 박덕흠 사장의 설명이다.

‘주체적인 우리의 시각’에 대한 강조는 시리즈의 첫째권을 《김복진》으로 설정한 데서도 드러난다. 한국 최초의 근대조각가이자 미술평론가였던 김복진(1901~1940)은 미술사학자들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작이 별로 없고 생전에 좌경적 성향을 보였다는 이유로 그의 예술세계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채 유보됐던 인물. 마침 8월중 김복진의 55주기를 기념하면서, 떠도는 신화와 전설로 남았던 그의 심오한 미학이론을 미술평론가 최열이 자료 발굴과 함께 재구성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김복진의 조각 예술세계를 ‘힘의 미학’으로 파악한다. 기하학적 구성에 충실하면서도 자연스런 생명체의 흐름에 따라 완벽하게 조절해내는 형식미를 구현한 조각가였다는 것. 졸업작품인 〈소녀〉, 조선미술전람회 출품작인 〈자작상〉(백화), 그리고 불교사상의 조화로우면서도 형상화한 〈소림원 불상〉을 비롯한 많은 불상조각들에서 현대적인 감각의 생명력과 당당함의 미학을 읽을 수 있다.

한편 대중문화에서 예술의 싹을 발견했던 ‘수퍼스타’ 앤디 워홀의 신비에 싸인 생애와



‘비즈니스 아트’의 세계를 탐구한 《앤디 워홀》은 그의 미술공연 같은 작품을 일관된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다. 저자는 〈2달러 지폐〉(코카콜라) 〈황금빛 마릴린〉(캠벨 수프 캔) 등 대중매체에 의해 생산된 이미지에서 포착해낸 앤디 워홀의 예술적 통찰력에 주목한다. 즉 앤디 워홀의 인생과 작품은 모두 ‘감춤과 드러냄’이라는 전략을 통해 신비감을 얻어낸 것이라고 본다.

국내외 작가 집중 탐구

또 유명인의 죽음이나 추락사고를 작품화한 일련의 ‘재난 시리즈’ 역시 사라져버리는 사고, 죽음을 실크 스크린 화면에 중성적인 냉담함으로 나타냄으로써 감추기와 드러내기의 팽팽한 긴장을 유지한다고 파악한다.

그런 전략은 그가 만든 영화에서도 드러난다. 여러 사람들의 키스 장면을 가까이 찍은 〈키스〉, 한 남자가 머리 자르는 과정을 담은 〈머리깎기〉, 버섯 먹는 장면을 45분 동안 찍

은 〈먹기〉, 그리고 8시간 동안 앰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찍은 〈앰파이어〉 등은 일반적인 영화규칙을 산산히 부숴뜨림으로써 ‘닫기’와 ‘열어두기’의 긴장을 유지한다. 어쨌든 그는 누구나 알고 있는 평범한 것들에서 새로움을 찾아냈으며, 현대사회의 단면을 예리한 직관력으로 포착한 ‘마법적 거울’의 주인공임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이 시리즈는 이미 국내작가 《김환기》(윤난지) 《박서보》(서성록)와 외국작가 《피카소》(오병욱) 《로댕》(최태만) 《만 레이》(박주석) 《고호》(김해성) 《프랭크 스텔라》(강태희) 《타틀린》(심광현) 등이 집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국내외 작가들의 꾸준한 탐구작업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도서출판 재원은 이밖에도 미술이론을 총체적으로 담은 ‘미술총서’와 개인 평론집 형태의 ‘미술평론’ 시리즈도 발간하고 있다.

재원/A5신/각 176. 96면/각 8000원

—김지원 기자

건축물과 문화현상의 새로운 접근

‘what is’ 시리즈



건축물은 한 시대의 문화현상을 가장 구체화시킨 구조물이다. 기능과 예술의 결정체인 건축에서 우리는 시대의 문예사조와 문화현

상을 읽을 수 있다.

건축평론, 예술평론 등 광범한 예술장르의 전문출판사를 표방하고 나선 도서출판 청람(대표 오덕조)이 처녀출판으로 내놓은 ‘청람신서’는 현대 건축의 문예사조를 하나씩 점검해나가고 있어 주목을 끈다.

“체대로 된 건축문화를 일군다”는 기획

의도로 출발한 이 신서는 우선 1권 《포스트 모더니즘 What is Post-Modernism?》 2권 《고전주의 What is Classicism?》를

펴냈고 곧이어 《해체주의 What is Deconstruction?》 《모더니즘 What is Modernism》도 번역을 완료, 출간할 예정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건축평론가, 건축가로 이름이 높고 건축에서 최초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정의해 비평가로서 더욱 유명해진 찰스 젠크스의 저서. 현대 건축의 동향과 세계 각국의 건축형태에 주목해온 저자는 예술과 건축장르를 중심으로 한 포스트모더니즘을 명쾌하게 해석해 내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건축의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이중기호화’이다. 즉 하나의 건축물에 새로운 기술과 전통양식이 조합돼 있으며, 전문적인 것에 기초한 동시에 대중적임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이 결국 정보사회의 이동을 향한 새로운 문화와 시대를 통과하는 다양한 형식의 출현임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미술작품과 건축물의 구체적인 등가물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시대의 문화현상에 대한 진단이 흥미롭다.

또한 《고전주의》(마이클 그린홀)에서는 ‘고전주의’의 폭넓은 이해를 서양미술사와 건축사를 통해 알아본다. 구조주의와 해체주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의 술한 가치체계의 뿌리를 ‘고전주의’에서 찾아야 할 것임을 저자는 암시한다. 즉 시대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강한 생명력으로 그 모습을 변화시킨 예술의 실체가 곧 고전주의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 책에서는 중세와 르네상스를 거쳐 19세기의 신고전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한 21세기의 고전주의에 이르기까지 전통의 역사 흐름을 살피고 있다.

풍부한 사진자료와 상세한 주석으로 이해를 높이고 있는 이 시리즈는 앞으로 매달 1권씩 펴낼 예정. 도서출판 청람은 이밖에 ‘해체주의 건축가들의 작품집’ 시리즈도 준비중이다.

청람/A4변형/각 110면 내외/각 16,000원